



옥상조경(2)



조경을 잘하면
건물값이 오른다



송광섭
이투데이 증권부장

인테리어에만 많은 돈을 쏟아 붓는 시대는 지났다.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줄여 실내 장식에 사용한다면 사무실과 카페 등 영업 환경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비싼 돈을 들여 인테리어만 한 곳보다는 계절에 맞게, 실내 분위기에 맞게 실내 장식을 한 곳에 더 눈길을 주기 마련이다. 고객들의 발길이 잦은 만큼 매출 향상으로 이어진다. 건축이 기초화장이고 인테리어가 색조화장이라면 조경은 마음 화장에 비유할 수 있다.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위기 마케팅을 강화할 때다. 전원주택에 대한 인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것이 더 조경이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 건물값이 달라지게 된다.



숨 가쁜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순화하는 데 자연만큼 좋은 치료는 없다. 또 자연을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정원을 가꾸는 것이다. 조경은 도시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운동-오락-휴양-교육-산책-보건-위생 등 다양한 분야와 깊이 연관돼 있다.

조경은 시각적 형태의 조화라는 이점 외에 기후 및 대기 질 개선 등 지구 환경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조경을 종합예술로 부르는 것은 별도 독립된 분야가 아니라 건축-설계-인테리어-조명-음향-조형 예술물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건물을 신축할 때 조경가, 건축가, 설계담당자가 사전에 서로 만나 이견을 조율한다. 공간의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건축 따로, 인테리어 따로, 조경을 따로 할 경우 그만큼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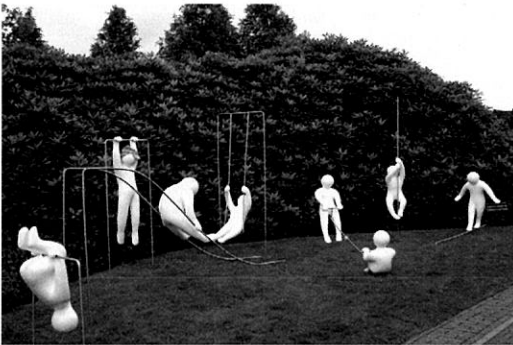
야외 파티장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 화단은 물론 공간 장식물들이 더 돋보인다. 여기에 음악-음향 효과

를 가미할 경우 감동과 느낌은 배가된다. 선유도 공원에서도 음향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 모델 정원을 가보면 대부분 식물과 나무들만 식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브제(공간장식물)와 조각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조각가들도 모델 정원을 상실 작품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술품이 화랑에만 전시되기보다는 야외에, 그것도 푸른 숲을 배경으로 했을 때 더 뛰어나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경관과 조망권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경관의 가치와 아름다운 조망권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불과 10년 전이다. 이제는 한강변에 좋은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들의 값이 오르고, 너나 할 것 없이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대가 됐다.

요즘에는 자연을 닮은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단지 내에 실개천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들도 많아지고 있고, 베란다에 조경을 한 아파트들도 자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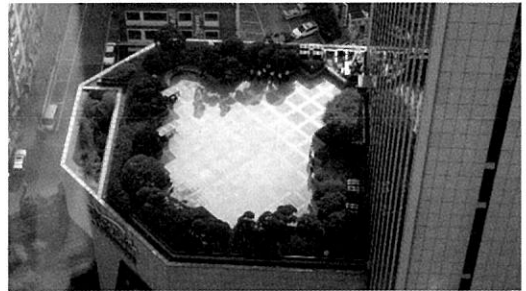


옥상조경, 지속적인 관리가 생명

식물 식재 후에는 뿌리가 기존 토양에 완전 밀착되고 새 뿌리가 형성돼 지하부 생육조건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적절한 수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뿌리가 완전히 활착한 후에는 가뭄과 장마로 인해 식물이 과

습 또는 건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외래 잡초를 비롯한 불필요한 잡초가 우세할 경우 식재된 식물의 수분과 양분을 빼앗아 식재된 식물에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제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식재 후 생육이 저조할 경우 시비를 해줘야 한다. 이때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액비나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토양보호에 좋다.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는 농약 살포를 금지하고 병든 개체나 부분을 없애주고, 충해의 경우 해충을 도구나 천연약제 등을 이용해 제거하면 된다. 옥상녹화에 적합한 수목은 건조에 강한 수목, 바람에 강한 수목, 뿌리가 얇은 수목, 성장이 느린 수목, 관리가 용이한 수목이어야 한다.



건물 옥상은 위치가 높다는 점에서 바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곳이다. 수목이 넘어질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고 토양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기도 한다. 철조망이나 목책, 방풍그물 등은 과풍

(破風) 효과를 가져다 준다. 식재된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지대를 설치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옥상조경 작업 시 이용자에 맞게 설계가 이뤄졌는지, 동선의 순환 및 폭은 적당한지, 식재 종류가 계절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식재됐는지도 점검사항이다. 휴지통, 벤치 등 편의시설은 잘 배치시켜야 한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 옥상조경을 비롯한 조경에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조경업자들은 화단을 설치하고 잘 죽지 않는 나무들을 심어주는 것으로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문성 및 직업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옥상조경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예 옥상조경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다. 더 흉한 모습을 하게 되고, 죽은 나무들과 엉켜있는 잡초들은 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전국 어디를 가도 똑 같은 모습을 하고있는 건물 주변 화단도 문제다. 각 지역별로 특색을 살린 조경이 아쉽다.



조경의 시대가 오고 있다.



조경 산업이 우리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보듬어줄 정서산업으로 각광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치열하고 각박한 삶이 지속되면서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한 휴식과 재충전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자연에 대한 그리움도 배가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경이란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단순히 빈터를 초록 식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공간을 '보고 또 보고'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조경산업이 덩달아 성장하지는 않는다. 조경이 주는 물질 이상의 의미, 즉 자연으로의 회귀, 삶의 본질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조경은 이제 '있는 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가 먼

저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가까이에서 그 진가를 향유하고 즐기느냐가 관건이다. 돈을들여 소유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정성을 들여 가꾸는 사람만이 그 귀중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내 주변에 작지만 풍요로운 소자연을 두고 싶어하는 욕구는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당초 조경이 사회적 이슈화 되는 시기를 10년 후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5년 후로 수정하여 전망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 화훼산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그들은 조경 및 화훼 산업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국민들의 정서 순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미리 인식했다.

조경은 국민들의 건강 유지와 건전한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을 준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사회적 병폐 현상은 심화된다.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넘어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감과 긴장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할 경우 개인적인 손실을 떠나 사회 병리 현상으로도까지 발전하게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활기와 역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IT 이후는 정서산업이 지배한다



조경(造景)은 자연 재료를 응용해 인간의 생활 목적에 맞게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위적인 손길이 가미되더라도 지구상 유기체들과 적절한 조화를 이룬 가운데 생태적 균형을 이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예술로 규정할 수 있다. 조경행위는 궁극적으로 공간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 복지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요구한다면 후행적 치료법인 의료비 지원 확대보다 국민들의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사전 예방 성격이 강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피곤에 지친 국민들의 심성을 부드럽게 순화시키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경 산업은 단지 일개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류학적 측면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대 조경의 아버지인 미국의 조경가 프레드릭 로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가 센트럴파크를 조성한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도시공원을 조성해 도시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시민들에게 목가적인 전원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해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간파했다. 대기 및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도심 교통량 감소와 배기가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도심 녹화작업이라는 큰 그림 속에 세부 정책이 추진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 당국이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서울시는 푸른도시국을 신설, 건물 옥상 조경 등 다양한 녹화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오랫동안 기능적인 도시공간과 시설로서 사용돼 오던 곳이 공원이나 녹지로 복원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물 공장 선유도가 송고미를 자랑하는 공원으로, 쓰레기 산 난지도가 하늘과 맞닿은 감각적 공원으로 변모됐다. 서울숲이 개장되고 청계천에 새 물이 흐르면서 서울시를 활력 넘치는 경관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인공 보행 목교와 실개천, 단지 내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고 녹지공간을 확대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구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구 급증,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염화불화탄소, 메탄 등 유해 가스의 증가와 발전소와 제련소에서 내뿜는 황산과 질산 같은 산화물질로 오존층이 크게 파괴됐고, 지구 곳곳은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서울만 보더라도 도시 열섬 현상과 스모그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서울시 당국자도 서울시가 매년 가스 절감 등을 위해 청정연료 사용과 매연절감 장치 부착 의무화 등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녹화사업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경 관련 직종도 조경사를 비롯, 정원관리사, 화훼장식사, 관상용 식물 재배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조경 장르도 세분화되고 있다. 실내 조경에서부터 베란다-테라스-발코니 조경, 정원조경(주택조경), 원예치료 조경, 분수조경, 계단조경, 암석조경, 벽면조경, 옥상조경(옥상 녹화), 터널조경, 묘지-장례 조경, 파티조경, 결혼식장 조경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야외 조경 가구 및 조경-조명자재 등 관련 산업 중 사자도 늘고 있다.

특히 옥상 조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옥상 녹화와 적합한 세덤과 다육식물 등 지피식물만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다. 🌿